

##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이윤정\*<sup>1)</sup> · 김경민\*\* · 김미자\*\*\* · 김유경\* · 송지은\*\* · 이연숙\* · 이정규\*\*\*\* · 이하나\*\* · 임정하\* · 정순화\* · 한영선\*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 강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가경중학교\*\*\*\*

##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Yoon-Jung Lee\*<sup>1)</sup> · Kyungmin Kim\*\* · Mi-Ja Kim\*\*\* · Yookyung Kim\* · Jieun Song\*\* · Yonsuk Lee\* · Jeonggyu Lee\*\*\*\* ·  
Hana Lee\*\* · JungHa Lim\* · SoonHwa Chung\* · Youngsun Ha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Gagyong Middle School\*\*\*\**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to assist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in their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process into South Korea. The program focused on building positive social relationships and managing healthy living, to allow them to develop appropriate skills needed to achieve social self-sufficiency. Researchers conducted interviews with defector adolescents as well as teachers of charter schools for defector students in order to identify the adolescents' need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carefully chosen to reflect the needs identified through the interviews. The program provides hands-on projects that are relevant to students' lives and consists of 10 study units that deal with different aspects of family life: food and dietary life, appearance and clothing, housing and community life, family and personal relationships, consumption, etc. The program was implemented in September through December, 2015, at Yeomyung School, which is an alternative highschool for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The program is expected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adopt the skills by experience and apply them in their daily life situations.

**Key words:** 탈북청소년(North Korean adolescents),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가정생활역량(family life competencies)

1) 교신저자: Lee, Yoon-Jung,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6, Fax: 02-927-7934, E-mail: yleehe@korea.ac.kr

2)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034)

## I. 서론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10월 기준 28,49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2015), 2014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초·중·고 포함 탈북 학생수는 총 2,183명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이전 북한에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는 등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Lee, 2002; Na, 2014), 탈북 이후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홀로 국내에 입국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수도 늘고 있으며, 부모가 있지만 부모들이 지방에 살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직접 키우지 못하는 실질적 무연고청소년의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Kim, Cho, & Choi, 2014). 이처럼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가족들과 헤어졌거나 생계 또는 학업을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 의지할 가족이 없어 외로움과 심리적 위축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4). 가족생활이 결여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로서의 역할모델이나 건강한 가정에 대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의식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Na, 2014) 미래에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탈북학생’으로 규정하여 이들과 관련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Lee et al., 2014).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정착지원 또는 학업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 대부분으로,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지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족의 기능과 가정생활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태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가정생활교육은 상이한 사회나 문화적응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남북한 가족가치관은 영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강한 가족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생활교육을 매개로 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은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Chung & Lim, 2014).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가정생활의 주요 영역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을 망라하는 교육프로그램, 즉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탈북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에서 적응하고 문화를 익혀가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을 돕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가족기능 및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문헌고찰

### 1. 탈북청소년의 현황 및 지원 프로그램 실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탈북학생 주요통계’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학생은 2014년 7월 기준 2,183명으로 초등학생 1,128명, 중학생 684명, 고등학생 371명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대량 탈북이 일어났던 1990년대 후반 북한이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2000년을 고비로 탈북학생들의 증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 북한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던 20~30대 여성들이 탈북 후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들의 남한 이주가 급증하는 것이 근래의 추세이다(Lee et al., 2014). 2014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중 44.85%가 중국 등 제3국 출생으로 2011년의 36.17%에 비하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들은 입국초기에 하나원 내에 탈북 중·고등학생을 위하여 설치된 하나둘학교를 통하여 초기적응 교육과 기초학습 지도, 심리적응 치료 등을 받게 되며, 하나원 퇴소 전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학력인정을 받아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정착기교육을 거쳐 일반학교나 대안학교에 배정된다. 탈북학생들은 북한에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 학령기를 초과

한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등에 배정되기도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교육부의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에 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도에는 2.5%로 2008년의 10.8%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일반학생(0.9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특히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아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탈북학생들의 절반 이상인 65.1%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들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탈북청소년 그룹홈 등도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은 북한과 제3국에서의 교육경험 부재로 인하여 남한 교육현장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높고, 신체적으로 발육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Chung, Chung, & Yang, 2004; Park, 2008; Lee et al., 2014).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북한과 남한 간 이질감에서 오는 혼란으로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3).

탈북청소년을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하나원(삼척초 및 하나돌학교 운영)을 통한 초기정착지원 및 정착금 지원,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를 통한 지원,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 학력 인정, 학비 지원,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14). 교육부에서는 하나돌학교 또는 한겨레학교에 교사를 파견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초기교육 지원 외에도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별입학전형기회 확대 등을 통하여 탈북학생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탈북학생용 교재개발, 탈북학생 특별반 운영,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 교원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다(Lee et al., 2014; Ministry of Education, 2015). 여성가족부에서의 지원은 이주배경(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및 문화통합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일부로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운영을 통한 지원과 하나원과의 협조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외에도 남북하나재단 또는 하나센터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육·생활시설 등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있다.

이상과 같은 탈북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학습·진학지원 또는 상담,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 위주로, 하나원 퇴소 이후에는 일상생활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나센터를 통하여 가족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다독임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Lee et al., 2014)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특수한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그들만을 위한 가정생활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 2. 탈북청소년의 가정생활 관련 실태 및 교육적 요구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이 가정생활측면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역량을 밝혀내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남한생활에서의 적응을 위한 적절한 기능을 획득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정생활의 각 영역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문헌자료 및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 1) 이성교제 / 성교육 / 양성평등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성숙이 일어나고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적 충동이나 고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정체감을 확립하고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성적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성충동 및 성행동, 성지식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Park & Chun, 2002).

특히 탈북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보다는 평균 연령이 높다는 특성상 성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탈북 이전 북한에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

한 가족해체 경험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기에 심각한 불안과 애착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탈북 청소년 상담 분석 자료에 의하면, 탈북청소년들은 친밀감 형성 이후의 무한신뢰, 이성교제 집착, 외로움, 열등감, 정서억압, 실존적 불안과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Kim, & Choi, 2013).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특히 남한에 연고가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외로움과 심리적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성격형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에게 성관계가 심리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게 하고,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탈북청소년들이 남북한의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분야 중 하나는 남녀의 성역할이다. 북한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남한 사회의 성역할 기대와 부딪히며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Kim, 2007).

## 2) 가족관계 / 의사소통

청소년들은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그로 인한 심한 갈등,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부모, 친구, 교사 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 해결 방법에 따라 결과물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므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갈등해결능력이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갈등해결방법을 학습하면 현재의 갈등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획득한 갈등해결 기술을 성인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Choi & Kim, 2006). 본 연구의 대상인 탈북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 비행행동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북한이나 제3국에 체류 중인 부모와의 분거 경험, 부모의 이혼, 부모와의 재결합, 가정폭력, 부모의 북한식 양육태도로 인한 갈등 등과 같은 가족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Choi et al., 2013). 이 과정에서 탈북청

소년들은 방임과 유기기를 경험하기도 하며, 가족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경험 부재로 인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가부장적 가정환경에서 가정폭력의 경험에 노출됨으로 인해 갈등 해결 방식으로서 폭력 사용을 학습하기도 한다(Kim, 2007).

## 3) 의생활

청소년기는 외모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시기이다. 북한의 경우 의생활 측면에서 많은 규제가 존재하며 의복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나 평양 고위층의 모습에 대한 기사들만 보더라도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조차도 외모를 꾸미고자 하는 욕구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의복의 배급이 중단되고,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하여 중국 또는 일본, 한국 등지에서 물품을 수급해 오면서 동시에 한류 드라마 등을 통하여 북한주민들 사이에도 남한의 패션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2016; Tudor & Pearson, 2015). 북한에서도 쌍꺼풀 수술이나 머리염색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추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01; Rhee et al., 1999).

Kim(2016)은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탈북 이전 및 탈북 이후의 의생활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탈북 여성들이 탈북 후 의생활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특히 의류제품과 관련해서는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의복의 명칭의 차이로 인하여 구매의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옷을 선택할 때는 색채 조화가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다. 색채는 가장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로 특정 문화의 색채에 대한 선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화적 경험이 요구된다. 한편 색채 조화에 대한 지식은 남한에서는 미술 또는 디자인 시간에 교육을 통하여 습득가능하나 탈북 여성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Kim, 2016). 이 외에도 탈북 여성들은 북한에서는 의류제품의 품질표시 및 관리법 라벨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 판매되어 의복의 관리 방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탈북 여성들 중에서는

드라이크리닝 등의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모직물로 된 의류를 일반세제로 세탁기에 세탁하는 등 잘못된 의복 관리로 인한 손실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의복관리나 색채 조화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 4) 식생활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시작되어 신체적 성장이 급증하는 시기(Park, 2006)로서 이러한 시기에 적당한 식생활과 영양공급은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부적절한 식생활과 영양공급을 경험한 경우, 그로 인한 성장지체로 성인이 되어도 체격 감소로 인한 체력 저하, 인지적, 정서적 장애, 면역능력 저하 등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Park, 2000). 북한의 경우 식량소비는 양과 질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실한 수준으로, 2013년에도 1인당 1일 곡물 섭취량은 360g이었고,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주민의 경우는 1인당 1일 곡물 소비량은 이보다 낮은 310g으로 열량으로 환산하면 1,250kcal를 제공받고 있었다(FAO/WFP, 2013). 또한 북한주민의 식단은 다양성이 부족하여 양념을 곁들인 곡물, 김치, 유지류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한의 전형적인 식생활에서는 단백질이 22%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실제로 Lee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소아청소년(7-12세)은 남한소아청소년의 표준치와 비교하였을 때 신장은 19%, 체중은 15%의 성장 미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식생활 환경 속에서 성장한 탈북청소년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습관화하고 있을 것이고, 남한의 식생활에 적응하여 새로운 식습관을 형성하기에는 남한청소년의 식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고 판단되어 탈북청소년이 남한청소년의 식생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영양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식생활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5) 주거생활

정부에서 임대주택 분양 시 탈북 이주민에게 특별 우선순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Choi, 2010).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유형이나 임대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의 주거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주거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북한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주거 유형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은 경제적 비용이 큰 영구적인 소비재로서 구입이 쉽지 않고 거주지 이동에 따른 생활의 변화가 커서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지 않다(Lee et al., 2003). 더구나 소득에 따라 주거생활에 차이가 크고 다양한 주거 유형이 있어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주거가치관과 주거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주생활 문화를 이해하여야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이웃과 소통이 가능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6) 소비생활

사전 심층면접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되는 정착금이나 임대주택 등에 의해 생활해 나아가고 있으며(Choi, 2010), 이들 중 약 90%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과 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족한 가계소득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 소비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남한에 와서 용돈이 주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 및 상품을 접하게 되었을 때 선택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밖에 신용구매, 저축 등 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경제교육 중심의 소비자교육을 받았으나 실제 소비생활을 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사결정, 정보탐색, 소비자권리 및 책임,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남한에서의 소비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의 소비생활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용돈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전 정보탐색이나 구매목록을 작성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needs)와 욕구(wants)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실제 구매행동에 있어 탈북청소년들은 그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및 서

스에 따른 적절한 구매장소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구매장소별 특성 및 장단점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탈북청소년 가게의 차원에서도 가정자원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소비자역할 행동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소비생활을 추구하여 예산제약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소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사항을 보았을 때 탈북청소년들은 문화와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Choi et al., 2013), 의, 식, 주, 소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역량 면에 있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여명학교에서 실시되었다. 여명학교는 우리나라 정부가 학력을 인정한 최초의 탈북청소년을 위한 인가형 대안학교로 이 학교에는 2015년 현재 고등학생 약 70여명과 위탁과정 및 중학생 약 2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다. 이 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한 이유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소재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가장 많고 수적 변동이 적은 학교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탈북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한겨레고등학교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 10회분의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서울소재 여명학교를 선정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에 소속된 2개반, 총 26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학생들 중 16명은 여학생이었으며 10명은 남학생이었다. 참여 학생들의 나이는 14세에서 26세 사이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Total
Gender	male	10(38.5%)	
	female	16(61.5%)	
Age	under 15	2(8%)	
	15 through 19	17(65%)	
	20 through 24	5(19%)	
	25 and above	2(8%)	
Place of birth	Pyeongang-nam-do	1(4%)	26(100%)
	Hamkyeong-nam-do	1(4%)	
	Hamkyeong-buk-do	9(34.5%)	
	Yanggang-do	3(11.5%)	
	China	7(27%)	
	No response	5(19%)	
Time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	before 2010	6(23%)	
	2010 and after	10(38.5%)	
	No response	10(38.5%)	
Duration of Residence in South Korea	less than a year	6(23%)	
	1 year and above, less than 2 years	7(27%)	
	2 years and above, less than 3 years	3(11.5%)	
	3 years and above, less than 4 years	1(4%)	
	4 years and above, less than 5 years	4(15%)	
	5 years and above	2(8%)	
No response	3(11.5%)		

(2015년 기준)로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18.11세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2. 연구 절차

### 1) 프로그램 개발 모형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Figure 1>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 • 1단계: 요구도 조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먼저 요구도 조사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한겨레고등학교와 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을 만나 사전 인터뷰를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7월과 10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 • 2단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인터뷰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파악된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 • 3단계: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보완

교수-학습과정안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5년 2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내부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7차의 검토과정을 거쳐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1-2차 회의에서는 가정생활의 각 영역별로 구성된 교육내용과 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고, 3-4차 회의에서는 수정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5-6차 회의에서는 수정, 보완된 교육내용을 실제 강의담당자가 직접 시연해봄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실시할 경우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마지막으로 7차 회의에서는 여명학교를 실제 방문자들의 후기를 통해 교육내용 제시방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교육 시행 전 여명학교 교사 및 탈북대학생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였다.

#### • 4단계: 프로그램 실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 2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1차 교육은 2015년 4월 당시 고1에 재학중이던 학생들 중 6월까지 재학이 예정되어 있었던 8명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시행되었으며, 2차 교육은 6월부터 새로 고1에 진입한 18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7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2개반 모두 45분짜리 10회분의 수업을 수강하였다. 수업은 각 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가 진행하였고, 개발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매체(강의, 조별활동, 발표, 모둠활동지, 식품모형, ppt 등)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 • 5단계: 프로그램 효과 검증

실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지는 교육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포함하도록 자기응답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사후 검사도구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의생활 10문항, 식생활 10문항, 소비생활 5문항, 가족생활 9문항, 주생활 5문항의 총 39개의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은 주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명칭을 알고 있다’,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등의 지식측정 문항, ‘옷감에 맞는 적절한 세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물건에 따라 적합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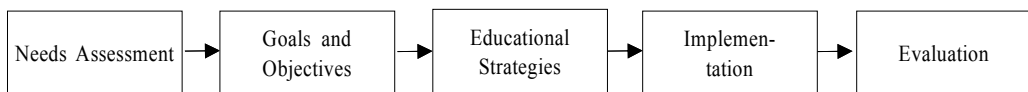


Figure 1. Stages of Program Development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를 선택하여 살 수 있다' 등 기능측정 문항, '식사 시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한다', '돈이 있을 때 어떤 물건을 살지 구매목록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등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전검사에서 그 외에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11개 문항이 추가되었다. 사전-사후검사 시에 중국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중국교포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제3국출신 학생들을 위하여 질문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후검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더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의 개방식 문항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전-사후 검사 평균점수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실질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d값을 산출하였다.

#### IV.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평가

##### 1.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목적

본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에서 적응하고 문화를 익히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을 돕고자 하였다. 이에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 가정생활의 전반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생활역량을 파악하여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은 실질적인 현물의 형태가 아닌 무형의 도움을 낫설고 생소하게 느낀다. 이에 물질이 아닌 추상적인 도움의 형태가 탈북청소년들에게는 다소 불필요한 도움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간 많은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한 피로감이 작용할 수 있어 탈북청소년들이 신선하다고 느끼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탈북'이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들이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다는 태도를 갖고 접근해야 하며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Choi et al., 2013).

##### 2.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본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에서 사회적 생활 자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능을 획득하도록 도움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와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인간관계, 소비생활 등에 대하여 탈북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능 또는 지식을 파악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개요를 교육이 수행된 여명학교의 교사들에게 검토 받았다. 각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따라 분야당 1~2차시가 배정되었다. 의생활, 식생활, 가족/인간관계에 대해서는 2차시씩, 주생활과 소비생활에 대해서는 1차시씩 배정되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생활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학습목표와 내용이 <Table 2>에 제시되었다.

##### 1) 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

1차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사전검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남한, 특히 서울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와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과 지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학생들에게 사전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간식을 나누며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이 앞으로 수업할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Table 2.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of Each Unit of the Program

Unit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Unit 1. Introduction	- Introduction to the program - Ice-breaking time between students and lecturers - Pre-program test of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Unit 2. Clothing Life I: What is our garments made of?	- To learn the names of garments or styles - To understand the names and characteristics of fibers - To learn how to choose appropriate garments based on fiber contents and care methods - To learn how to determine care methods for apparel products based on fiber contents
Unit 3. Clothing Life II: In search of one's own color	- To learn how to find one's own personal color type - To understand the color symbolism and meanings that different colors represent - To apply color principles to coordinate fashion items and present one's personal image
Unit 4. Food & Dietary Life I: Let's check my current nutritional status	- To understand the nutritional status and food intakes of adolescents - To identify insufficient nutrients: Calcium, iron, and dietary fibers - To understand how to achieve nutrition balance
Unit 5. Food & Dietary Life II: Any problem with my dietary life?	-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skipping breakfast -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ating three daily meals regularly - To learn about diabetes and meal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abetes
Unit 6. Housing & Community Life: Living happily with neighbors	- To learn about different housing types and their characteristics to make rational housing decision - To understand the elements of rental housing contracts - To identify potential problems that may occur among neighbors of a shared housing complex
Unit 7. Family & Personal Relationships I: Discovery of love	- To understand what defines a healthy relationship with other gender - To learn to become responsible for healthy sexual opinion and sexual behavior - To understand dating sexual violence - To be able to obtain gender egalitarian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gender
Unit 8. Family & Personal Relationships II: Family Talk	- To understand conflicts in family relationship - To understand how to solve the conflicts and establish harmonious family relationship - To learn about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s
Unit 9. Consumption & Resource Management: What a savvy consumer am I!	-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optional places to purchase products and services - To understand the Open Price Policy and the information sources of commodity prices - To learn about different types of consumer information - To understand considerations for decision-making on where to buy and what to buy
Unit 10. Closing and Follow-up	- Summary and wrap up of the program - Post-program test of knowledge and attitudes - Feedback from the students

2) 2차시: 우리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의생활 I)

2차시 수업은 의생활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의 의복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목표로 진행되었다.

- (1) 섬유와 명칭을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2) 의복 선택 시 섬유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의복을 선택할 수 있다.
- (3) 섬유의 특성에 알맞은 세탁방법으로 올바른 의복 관리 할

등을 실천할 수 있다.

남한에서 현재 사용하는 옷의 명칭은 서양의복에 기반한 현대사회 의복문화의 특성상, 영어 표현이 대부분이어서 북한에서 순화된 문화어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의복의 명칭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본인들이 현재 입고 있는 옷의 명칭을 아는지 질문을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의복을 중심으로 명칭을 설명하였고 또한 현재 입고 있는 옷을 구매할 때 소재가 무엇인지 알고 구입했는지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묻는 질문을

하여 소재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선수학습 수준을 파악하였다. 소재는 크게 면, 견, 모, 마 섬유의 천연섬유와 폴리에스테르로 대표되는 합성섬유의 스와 치를 번호를 부착해 나눠주었다. 교수자와 함께 1번 섬유부터 색을 확인하고 만져서 촉감을 느끼고 울을 풀어보거나 힘을 주어 구김이 생기는 정도 등을 확인하여 소재를 직접 체험하게 하였다.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도출된 특징들을 정리하여 번호대로 소재의 이름을 맞춰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재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소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탁이나 다림질과 같은 의복 관리 행동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수업하였다.

3) 3차시: 나만의 컬러를 찾아라! (의생활 II)

3차시 수업내용은 색이 가지는 시각적이며 미적 인식 차이에 대한 내용을 주된 수업 내용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전 조사에서 남북한의 문화차이에 따른 색채 이미지에 대한 내용과 선호 색상의 차이 등이 옷을 입거나 구매할 때 작용하여 그로 인해 남한에서 차별적 시선을 받는 것이 두렵다는 언급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적인 학습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색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색상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 (2) 디자인 원리와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조화로운 의복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업 내용으로는 퍼스널 컬러 키트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활동을 준비하였다. 분홍,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다섯 가지 색상의 사계절에 해당하는 컬러를 인쇄한 총 20장의 키트 중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하게 한 후 그 색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 색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골라 자신의 색채 이미지를 파악하고 형성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또한 색채 조화 이론에 대해 설명하여 다양한 색채 배합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조화로운 의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각 색상이 지니는 다양한 이미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남북의 차이에 대해서도 인지하였고 문화별로 색상이 지니는 이미지에 차이가 있으며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부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시켰다.

4) 4차시: 나의 현재 영양 상태는 어떨까요? (식생활 I)

4차시의 학습목표는 영양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 (1) 청소년 맞춤형 영양을 실천하기 위해 현 식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 (2) 자신의 식생활을 반성 및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청소년들의 부족한 영양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섭취를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세부내용은 1) 청소년기의 영양상태, 2) 청소년기의 식품섭취실태, 3) 부족한 영양소-칼슘, 4) 부족한 영양소-철분, 5) 부족한 영양소-식이섬유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현재 남한 청소년들의 영양소 섭취 실태를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영양 상태는 어떠한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양소들의 역할들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부족한 영양소가 많이 든 음식과 음식별 궁합을 예시로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5) 5차시: 나의 식생활 문제는 무엇일까요? (식생활 II)

4차시에서 영양에 대한 사항을 다룬 데 비하여 5차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의 내용을 다루었다.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다.
- (2) 올바른 식사 관리를 통한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제는 1) 아침결식, 2) 하루 3끼의 중요성, 3) 당뇨병과 식사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남한 청소년들 사이의 아침결식 현황과 이유를 살펴보고, 하루 3끼 식사의 중요성과 하루 3끼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영양문제인 당뇨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주었다. 당뇨병의 발병 원인과 종류 및 합병증에 대한 내용을 사진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당뇨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또한 기초식품군에 따른 식품모형을 학생들이 직접 보드에 붙여보며 식단을 구성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균형 있는 식사의 실천을 연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6) 6차시: 이웃과 함께 하는 주생활 (주생활)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생활의 으뜸 가운데 하나인 주생활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주생활의 다양한 주생활 방법은 인격형성과 가족의 단란 및 인간의 정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탈북청소년들이 주생활에 대한 올바른 주거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여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생활 단원을 계획하였다.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주거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2) 임대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설명할 수 있다.
- (3) 이웃을 배려하는 주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

주생활 단원은 학생들이 직접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적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으므로 주거 유형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주거의 유형은 사진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탈북 이주 학생들이 거주할 가능성이 많은 임대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임대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한의 주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공동 주거생활에서 이웃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 애원견 키우는 것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웃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주생활 문화를 익혀 실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주거의 유형을 살펴보고 구별할 수 있었으며, 임대주택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확인하여 임대주택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을 익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관련된 동영상과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발표해 봄으로써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주생활 문화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7) 7차시: 연애의 발견 (가족생활I)

7차시 강의의 수업 세부 주제는 이성교제와 성교육 그리고 이성교제에서의 양성평등이다. 7차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바람직한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2) 건전한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3) 데이트 성폭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이성 관계에서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이성교제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사랑 유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사랑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 가치관과 이성교제 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아본 뒤, 이성교제 시 갈등상황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양성평등 가치관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피임방법에 대한 설명 및 동영상 시청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8) 8차시: Family Talk (가족생활II)

‘Family Talk’라는 주제로 진행된 8차시 강의의 수업 세부 주제는 가족 간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이다. 8차시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 (2) 원만한 가족(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갈등의 해결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3)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갈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사소통 유형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였고, 각 유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가족 내 갈등해결을 위해 의사소통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9) 9차시: 나는 물건 잘 사는 스마트한 소비자! (소비생활)

9차시는 ‘나는 물건 잘 사는 스마트한 소비자!’라는 주제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시 구매장소별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다양한 구매 장소의 유형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2) 실제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시 적합한 구매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이상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탈북청소년이 북한과 남한의 경제제도 차이로 인해 구매 장소와 관련하여 겪게 되는

근관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본인의 경험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후 다양한 상품별로 서비스 구매 장소(전통시장,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5가지)별 구체적 특성 및 장단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구매 장소별 동일 품목의 가격, 품질, 원산지, 교환 및 환불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소비와 관련된 북한용어와 남한용어 차이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모둠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이 활동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구매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3인 1조로 13만원 예산으로 구매할 3가지 물건(학생들이 즐겨 찾고 좋아하는 피자, 운동화, 책가방, 화장품, 삼겹살, 허니통통)의 목록을 주어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을 연습하게 하였다. 또한 오픈프라이스 제도와 생필품 가격 정보 사이트를 안내하고 소비자정보의 유형(표시정보, 품질인증정보, 등급사정)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구매결정 시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10) 10차시: 마무리

마무리 시간에는 수료증 수여와 설문지를 이용한 사후검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간식을 나누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업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다. 특히 수업을 통하여 배운 내용 중에서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점, 더 알고 싶은 내용 등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3.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평가

1) 사전-사후 검사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 때 결석한 학생들을 제외하여 1회기 학습에서는 총 8명 중 5명, 2회기 학습에서는 총 18명 중 17명이 설문에 참가하여 총 23개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분석은 각 분야의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3). 표에서 점수가 높을 수록 가정생활에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81점에서 2.95점( $t=3.97, p<.01$ )으로 청소년들의 지식, 기능, 태도 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전체 프로그램 평균뿐 아니라 식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분야 프로그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실질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는 Cohen의  $d$ 값이 .78로 나타나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비교해 살펴본 효과의 크기는 소비생활과 식생활 분야의 프로그램에서 매우 컸고, 주생활 분야, 가족생활 분야, 의생활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2) 개방형 평가 및 구술 피드백

사후조사 설문지에 포함되었던 개방형 평가내용과 10차시 수

Table 3. Pre-/Post-test Comparison (N=22)

Topic Areas	Pre-test		Post-test		Paired t-test	Cohen's d
	M	SD	M	SD		
<b>Program in General</b>	2.81	0.55	3.23	0.52	3.97**	.78
Appearance & Clothing	2.75	0.77	2.95	0.67	1.81	.28
Food & Dietary Life	2.92	0.63	3.51	0.75	3.66**	.85
Housing & Community Life	2.54	0.72	3.01	0.80	2.42*	.62
Family & Personal Relationships	2.94	0.58	3.18	0.50	1.52	.44
Consumption & Resource Management	2.74	0.76	3.53	0.92	3.86**	.94

\*  $p <.05$ . \*\*  $p <.01$ .

업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구술 피드백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사전-사후검사의 양적 비교 결과에서는 의생활 영역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검사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실질적 유의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은 이 두 영역을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 그리고 가장 더 많이 알아보고 싶은 분야로 꼽았다. 사전-사후검사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총 90분의 수업만으로는 충분히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여겼던 것으로 파악된다.

학생들은 또한 이 프로그램을 다른 탈북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더 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으며, 특히 대인관계,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의복의 선택, 건강문제와 식생활 관리 등의 내용을 더 배우고 싶다고 답하였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남한에서 적응하고 문화를 익혀가며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한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을 돕고자 의, 식, 주, 가족, 소비생활의 측면을 다루는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을 위한 인가형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소속된 2개반, 총 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평가하는 사전-사후 검사와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역량에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체 프로그램 평균뿐 아니라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 분야 프로그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의생활,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생들은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이 가정생활을 위한 기능의 습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권하기를 희망하였고, 좀 더 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이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가정생활을 위한 기본역량을 갖출 기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프로그램이 실제 가족과의 가정생활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생활역량을 갖추게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생활역량 측면에서 집중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 탈북청소년들을 선별하고 이들의 적응을 돕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가정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서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도움을 준다는 목적에는 부합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파악되기도 하였다. 의생활 수업의 경우, 청소년기 외모 발달 및 관리 행동에 대한 관심의 여파로 학생들은 수업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엄청난 양의 정보 중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시켜 주었다는 데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었으나 개인 스타일에 따른 개별적 조언이 가능하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모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며(Lee, 2012), 청소년기의 의미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Han & Lee, 2007; Yoon & Wee, 2010)을 고려한다면 외모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기능을 습득하고 외모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주생활 수업은 학생들이 임대주택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이라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거 유형에서 다양한 주거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남한의 공동주거생활 문화에 대한 부분은 다소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탈북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계획 세우기와 이와 관련된 주택 시장과 주택 경제에 관한 내용, 그

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을 나에게 맞도록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는 실내디자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식생활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영양상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궁금증을 호소하였다.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아 영양에 대한 수업 외에도 개별적 영양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식생활 II의 경우 ‘아침결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탈북학생들은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주먹밥이며 과일이며 잘 섭취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은 상대적 중요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마트에서의 장보기와 조리실습 수업 등 실습을 통해 직접 식품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 I의 이성교제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그만큼 현재 학생들의 주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청년기라는 발달단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상이한 이성교제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에서는 배우자 선택기준으로 성분과 토대가 가장 우선시되었으나 식량난 이후 경제력이 중요해지면서 좋은 배우자감의 기준으로 토대보다 돈이 강조되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사실혼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북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3).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경제난이나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남한 문화를 접하면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문화동화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는 북한 주민에게 통일 이후 가장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타아소에서 성장하였고, 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이 결여된 탈북학생들의 경우 이성과의 관계는 단순히 청소년기의 연인관계 자체에 대한 욕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보완하고 확장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교육의 필요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가정생활문화의 정착률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성교제와 결혼생활 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Chung & Lim, 2014). 나아가 추후 수업 진행시에는 조금 더 많은 차시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이성교제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이성교제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생활 II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에서 북한은 집단적 가치를, 남한은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Lim & Chung, 2015). 집단적 가치를 중시하는 북한에서는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수준도 상당히 높다. 실제로 북한이 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북한에서 경험한 가부장적 가족문화, 고정된 성역할, 수직적 가족관계에서 오는 경직된 부모자녀관계가 남한에 와서 많이 변화하였으나 두 방식 간에 적절한 양육방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Seo, Kim, & Park, 2011). 따라서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감소시키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그 대상을 확장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장기간 제3국에 머무르거나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는 탈북학생들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충분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영역보다 친구관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 방식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면 탈북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발달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 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적극적 수업참여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소비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남한의 경제체제 및 소비생활과 관련된 시사성이 있으며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자료를 제시 할 때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나 소비생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용어의 차이를 사전에 설명하여 학생들이 제시되는 자료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모둠활동 수업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할 경우 모둠별로 교사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 및 개선점을 알려 주는 방법은 추후에도 유용하다고 본다. 그리고 수업 중 교사가 남한의 소비생활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소비생활의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기법을 적용한다면 이들이 남한의

소비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여명학교 등 탈북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연령범위가 넓어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 군데 학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타 학교에 적용할 때에는 그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선 및 수정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에서 온 강사들이 1~2회씩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충분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학생들과 친밀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각 학교의 정규교사들이 교육을 실시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10회차로 개발되어 다양한 가정생활의 영역을 일반적으로 다루었으나 이후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식생활, 의생활, 가족생활 등에 대한 심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Cho, K. H. (2001). A study on the apparel industry and the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5(4), 158-175.
- Choi, B. Y., Kim, H. A., & Choi, Y-W. (2013). Intervention plans on the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recognized by professional practitioners for the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1(2), 497-525.
- Choi, C-W., & Kim J-H. (2006).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youth conflict resolution programs(YCRP). *Studies on Korean Youth*, 17(1), 61-78.
- Choi, S. U. (2010). *A study on the improving alternatives of housing supporting policy for North Korean refuge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 Chung, J.-K., Chung, B.-H., & Yang, K.-M. (2004). The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n South Korean schools. *Tongilmunjeonku*, 16(2), 209-239.
- Chung, S. H., & Lim, J. H. (2014). A comparison of the Korean family val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4), 97-127.
- FAO/WFP (2013. 11. 28).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Han, M.-S., & Lee, Y.-J. (2007). The appearance satisfaction according to parents' appearance related parenting style and undergraduate children's self 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9(4), 247-256.
-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2013). *Understanding North Korea 2013*.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 Kim, B.-U. et al. (2013). *Improving peer relationships for North Korean refugee high school students: A grounded theory-based approach*. Seoul: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 Kim, C. D. (2007). The development and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Proceedings of the 2007 Fall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Symposium*. (pp. 47-81)
- Kim, M.-H. (2016). *A study o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clothing life: Actual condition of clothing in North and adaptation process in S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ee, I., Park, H., Kim, Y., & Park, H. (2011).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7(4), 256~263.
- Lee, J., Kim, M., Mo, T., Park, M., Park, S., & Cho, J. (2003). Content analysis of housing area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2), 35-64.
- Lee, K. Y., Kim, M. K., Cho, J. H., & Choi, J. W. (2014). *Policy*

- analysis of and effective alternatives to current assistance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and NK defectors' children: Unaccompanied minors, children born in the 3<sup>rd</sup> countries, and those born in South Korea.*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Lee, K.-Y. (2002).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 adapt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Studies of Korean Youth*, 13(1), 175-224.
- Lee, Y.-J. (2012). Adolescents' body image and clothing life education[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의생활교육]. *Proceedings for 2011 Winter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 29-49.
- Lee, Y.-J., Seo, M. H., Kim, S. H., & Park, Y. J. (2011). *A study on child-care in North Korea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Research Report, 2011-19). 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Lim, J. H., & Chung, S. H. (2015). The value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77-95.
- Ministry of Education (2014). *Announc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statistics. News Release*. Retrieved on February 13, 2016, from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5691>
- Ministry of Education (2015). *Announc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 students assistance plan of 2015. News Release*. Retrieved on February 13, 2016, from <http://www.moe.go.kr/web/106888/ko/board/view.do?bbsId=339&boardSeq=58635>
- Ministry of Unification (2010). *Unification white paper*.
- Ministry of Unification (2014). *Unification white paper*.
-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2015). <http://www.unikorea.go.kr>
- Na, J. Y. (2014). Family disorganization in the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oral life story and trauma.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toward Communication*, 60, 97-133.
- Park, S. H. (2006). Adolescent nutrition and growth.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49(12), 1263-1266.
- Park, S. Y. (2000). An assessment of the long-term effects of food crisis on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ultural Anthropology*, 33(1), 207-240.
- Park, Y. S., & Chun, Y.-M. (2002). Development of the sexuality inventory for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891-909.
- Park, Y. S. (2008). Assistance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및 공공서비스]. In Lee, K.-Y. (Ed.) *Policies and services for immigrants[이민자 정책과 서비스]*. Seoul: Nanumeuijib.
- Rhee, E., Kim, D., Park, Y., Rhee, K., Lee, K., Yi, S., & Choi, Y. (1999).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 (III).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1), 15-28.
- Tudor, D., & Pearson, J. (2015).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Tokyo: Tuttle publishing.
- Yoon, S.-I., & Wee, E.-h.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in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2), 1-13.



## &lt;국문요약&gt;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가족기능과 생활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남한사회에의 적응을 돕는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탈북청소년들과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교육은 2015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시행되었다. 청소년들이 실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및 대인관계, 소비생활 등의 주제로 10차시 분량으로 준비되었다. 사전-사후 평가에서 의생활 및 가족생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의 지식 및 역량 면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구술 응답에서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가족기능 및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논문접수일자: 2016년 2월 15일, 논문심사일자: 2016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3월 29일